

리눅스 운영체제 국제 협력 프로젝트, 아시아눅스

(주)한글과컴퓨터 | 김진광

1. 서론

북유럽 핀란드의 한 대학생이 그냥 재미로 리눅스(Linux)를 만들었다. 그리고 인터넷에 공개하여 전 세계 개발자들의 관심과 소스 개선을 위한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해냈다. 리눅스가 처음 인터넷에 공개된 지 17년이 지난 지금, 지나온 시간보다 훨씬 많이 성장한 리눅스의 모습을 볼 수 있다. 물론 오늘날의 리눅스가 유명세를 타기까지는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과 순탄치 않은 과정이 있었다.

90년대 초, 레드햇(Redhat)이라는 리눅스 전문회사가 생기면서 리눅스 비즈니스에 대한 가능성을 열었다. 중반에는 아파치(Apache)라는 웹서버용 소프트웨어가 나오고 리눅스의 안정성이 알려지면서 리눅스는 웹서버용 운영체제로 널리 사용되기 시작했고, 현재 리눅스가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분야이다.

웹서버용 운영체제로서의 리눅스는 90년대 후반부터 불기 시작한 닷컴 붐에 자연스럽게 합류했다 수많은 리눅스 기업들이 생겨났고 닷컴 기업과 함께 고도성장을 할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닷컴 거품이 꺼지면서 리눅스 진영에도 찬 서리가 내렸다.

그러나, 오픈소스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많은 리눅스 회사들이 리눅스에서 다른 아이템으로 방향을 바꿨음에도 불구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개발 커뮤니티는 비즈니스 모델과 무관하게 리눅스의 기술과 성능을 꾸준히 발전시키고 현재의 모습에 이르렀다.

최근 몇 년 동안 리눅스의 화두는 엔터프라이즈 시장으로의 성공적인 진입이었다. 커널의 메이저 업그레이드와 더불어 지원 어플리케이션의 다양화는 고가용성을 실현했고 통신기간시스템, 금융권 등의 미션크리티컬 분야에서 그 성능을 입증했다. 대형 사이트를 중심으로 리눅스 도입이 눈에 띄었으며, 이는 소규모 업체들이 중심이 되어 진행되던 과거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다. 한 번의 실패로 쉽게 사라져 버리는 소규모 업체 중심의 구조로 진행되던 과

거에 사용자의 눈에 보였던 리눅스와 현재의 리눅스는 확실하게 차별화 된다.

2. 대표 공개소프트웨어, 리눅스

2.1 리눅스의 태동

리눅스는 1991년 당시 핀란드 헬싱키 대학의 대학생인 리누스 토발즈(Linus B. Torvalds)가 취미삼아 프로젝트로 추진하면서 개발된 운영체제이다. 리누스는 개발 초기에 386 보호모드(protected mode)에서 작업 전환에 대한 내용을 어셈블리를 사용하여 코딩하였으며, 어느 정도 개발이 진행된 리눅스는 C언어로 프로그래밍하여 개발을 가속화하였다. 리누스는 자신이 만든 리눅스에서 gcc를 재컴파일하는 것을 목표로 밤낮 없이 코딩해나가기 시작했고, 드디어 리눅스의 심장인 커널을 완성하기에 이르렀다. 리눅스라는 이름에서 유닉스를 떠올리게 되는 것은 개발자인 리누스(Linus)의 이름과 개발 모델로 삼은 유닉스(Unix)의 이름을 합쳐 리눅스(Linux)로 불렀기 때문이다. 그뿐만 아니라 리눅스는 유닉스와 운용 부분에서도 서로 비슷한데, 이는 유닉스를 모델로 삼았기 때문이다.

현재의 리눅스가 있기까지에는 인터넷의 공로가 무척 크다고 할 수 있다. 만약 인터넷이라는 세계적인 네트워크망이 없었다면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리눅스의 존재를 알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1991년 8월에 최초의 리눅스 버전인 0.01이 완성되었지만 리누스는 이것을 발표하지 않았고, 첫 번째 공식 버전인 0.02를 같은 해 10월 5일에 comp.os.minix라는 유즈넷 뉴스 그룹에 발표했다. 이 버전은 bash와 gcc, compress, gnu-make 등이 성공적으로 실행되었다고 한다. 이후 뉴스 그룹에 발표된 리눅스 소스를 본 많은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개발에 참여하기 시작했다.

이에 리눅스의 기능은 더욱 많아지고 안정되어, 버전 0.03에서 단번에 버전 0.1로 올라갔고 수많은 버전을 거쳐 1993년 12월에 0.99까지 오르다가 94년도에 이르러 버전 1.0이 발표되었다. 리눅스는 다른 운

영체제와 달리 수시로 성능이 향상되고 있으며, 수많은 패치를 통해 1996년 6월에 리눅스 안정 커널인 버전 2.0.0이 리눅스 FTP사이트에 발표되었고, 수많은 리눅서(Linuxer, 리눅스 사용자)들이 이 버전을 다운로드 하였다.

2.2 리눅스의 특징

리눅스는 완전한 다중 작업(Multi-processing), 다중 사용자(Multi-user) 운영체제이다. 즉 여러 사용자가 동시에 같은 머신에 접속하여 여러 작업을 동시에 실행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또한 리눅스는 듀얼 CPU, 하이퍼스레딩(Hyperthreading), 듀얼 코어와 같은 다중 프로세서 시스템도 지원한다. 한 시스템에서 기본 64개(최대 256개)의 프로세서까지 지원 가능하며 고성능 서버나 과학 분야 그리고 최근에는 애니메이션 분야까지 그 분야를 넓혀가고 있다. 또한 리눅스는 가상 콘솔을 지원하기 때문에 텍스트모드의 시스템 콘솔에서도 로그 세션을 여러 번 열 수 있는 특징도 가지고 있다.

리눅스는 가장 강력하고 견고한 네트워킹 시스템을 지원한다. 리눅스는 주요 네트워킹 프로토콜인 TCP/IP(Transmission Control Protocol)와 UUCP(UNIX-to UNIX Copy Protocol) 등을 지원한다.

리눅스는 Xfree86 또는 Xorg를 바탕으로 하여 KDE, GNOME 등을 이용한 GUI환경을 지원한다. Xfree86 또는 Xorg는 X서버이기 때문에 원격에서도 GUI화면으로 로그인 가능하다.

리눅스에서는 각종 유닉스 프로그램 및 GNU 프로그램을 대부분 바로 사용할 수 있다. 우리에게 널리 알려진 각종 프로그램은 물론 아직 잘 알려지지 않은 혹은 앞으로 탄생될 많은 가능성 있는 우수한 프로그램들이 소스포지(sourceforge.net)에 17만건 이상 등록되어 있다.

2.3 리눅스의 용도

2.3.1 서버

리눅스는 데스크톱과 서버 모두에서 사용할 수 있다. 이 중에서 리눅스의 강력함을 가장 크게 느끼게 해주는 부분이 바로 서버로서, 조그마한 중소기업의 서버에서부터 대규모의 클러스터링(Clustering) 서버 등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이용되고 있다.

간혹 사람들은 “이렇게 오픈소스로 되어 있는 제품을 과연 사용해도 안전한 것인가?”하고 반문한다. 그렇지만 리눅스는 현재 가장 신뢰성 있는 서버로 인정받고 있으며 세계 각지의 소스코드 해커들에 의해 좀 더 견고하고 더욱 강력한 운영체제 될 수 있도록

진화하고 있다. 보안에 문제가 전혀 없다고 말하는 것만큼 위험천만한 시스템은 없다. 그것은 자신의 시스템이 보안에 문제가 있는지 조차 확인할 수 없다는 뜻과 동일하기 때문이다. 문제에 신속한 대처가 가능한 운영체제가 바로 리눅스이다.

2.3.2 데스크톱

데스크톱으로서의 리눅스 또한 끊임없이 발전하고 또 발전해 왔다. 아직도 리눅스를 검은 화면에 텍스트로 가득 찬 운영체제로 오해하고 있다면 최신의 KDE 3.5 혹은 GNOME 2.18를 지원하는 리눅스 배포판을 설치해보기 바란다. 각종 응용프로그램도 놀라울 정도로 기능향상을 해왔고 그 범위를 넓히고 있다. 아무튼 지금의 발전 속도로 비추어 볼 때 데스크톱에서 현재 가장 각광받고 있는 MS사의 Windows의 비중이 축소되고 리눅스의 영역이 넓어질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 사실이다.



그림 1 아시아눅스 데스크톱3의 응용프로그램 구동화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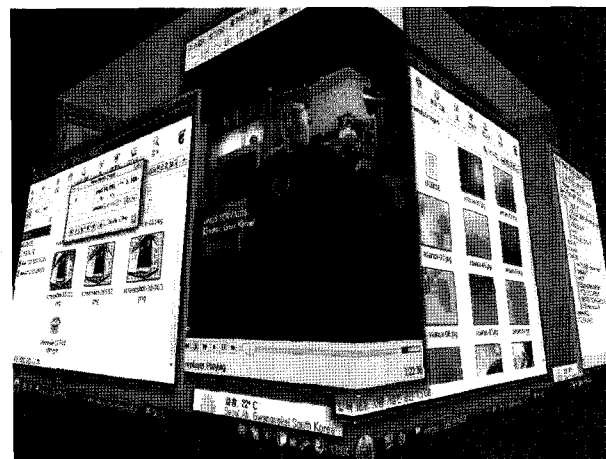


그림 2 아시아눅스 데스크톱 3의 3D 기능 구동화면, 4개의 다중 데스크톱을 지원한다

표 1 데스크톱용 리눅스 SW 및 윈도우즈 SW 비교표

프로그램	주요 기능	리눅스 SW	윈도우즈 SW
웹브라우저	웹사이트를 방문할 수 있는 웹 브라우저 프로그램	Firefox	Internet Explorer
메일 클라이언트	POP3, IMAP, SMTP등을 지원하는 이메일 클라이언트 프로그램	Thunderbird	Outlook
그림판 (이미지편집)	많은 데스크탑 리눅스에서 채택하고 있는 그래픽 편집 프로그램으로 포토샵과 비슷한 기능	Gimp	Photoshop 등
동영상 재생기	대부분의 데스크탑 리눅스에서 채택하고 있는 동영상 플레이어. rm, mov부터 avi, asf에 이르기까지 모든 동영상 코덱을 지원	Mplayer	WMV, Gomplayer 등
사운드/MP3 재생기	가볍고 빠른 음악파일 플레이어	BMP	Winamp 등
압축 프로그램	리눅스에서 알집파일(alz)를 압축해제하기 위한 GUI 환경 frontend으로 압축해제만 가능	리눅스용 알집	알집 등
PDF 뷰어	아크로벳리더와 같은 pdf 뷰어 프로그램	xpdf	Adobe Acrobat Reader
스크린 캡처	스크린샷 프로그램으로 MS 기반의 snagit과 같은 기능	ksnapshot	그림판 등
이미지 뷰어	MS의 picasa나 asee, acdsee와 같이 이미지 뷰어 프로그램	gthumb kquickshow	Asee, Picasa 등
메모장	메모장/워드패드 프로그램	kate, kedit kwrite, gedit	Notepad, Wordpad 등
FTP 클라이언트	ftp클라이언트 프로그램	gftp	알FTP 등
메신저/채팅	MSN등이 호환되는 메신저 프로그램	gaim, kopete Skype, Nateon	MSN, Skype Nateon
오피스	Word, Spreadsheet, Presentation	싱크프리 한컴오피스(예정) Open Office	MS office

2.3.3. 모바일

모바일용 임베디드 리눅스는 과거부터 PDA나 휴대 전화, 스마트폰(Smart Phone), PMP 등 휴대용 장치나 셋톱박스(Settop Box) 등에 탑재되어 우리가 알게 모르게 많이 확산되어 있다. 리눅스가 적용되고 있는 세 가지 분야 중 가장 안정적으로 시장에 안착하고 있는 분야이다. 모바일용 운영체제 및 응용 프로그램은 기본적으로 용량이 작아야 하고, 표준화 되지 않은 각각의 디바이스는 물론 다양한 상용자 환경을 맞춰야 하는 이슈가 있는데 소스가 오픈되어 있는 리눅스는 PDA, 스마트폰, 셋톱박스 등 용도에 따라 필요한 기능만 최적화해서 사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효율성이 강하다.

삼성, LG, NEC 등 세계적인 모바일 벤더들이 리모 파운데이션(LIMO Foundation)을 설립하고 그 결과물을 적용하기 시작했으며, 구글(Google)의 안드로이드(Android), 인텔(Intel)의 모블린(Moblin) 프로젝트도 리눅스 기반의 모바일 운영체제를 목표로 하고 있다.

2.4. 리눅스와 배포판

1991년 처음 리눅스 커널이 공개된 이후 1992년부터 배포판이 나오기 시작했다. 영국 맨체스터 대학의 맨

체스터 컴퓨팅 센터(Manchester Computing Centre)에서 만든 MCC Interim 리눅스 배포판이 있었는데 이것은 리눅스 커널과 그 외에 프로그램을 포함한 것으로 6~7장의 플로피를 이용하여 설치할 수 있는(X가 포함되지 않은) 작은 배포판이었으나 설치가 까다롭다는 단점이 있었다. 다음으로 Soft Landing Software라는 회사에서 SLS(Softlanding Linux System) 배포판을 내놓았는데, 플로피로 설치할 수 있도록 도스형태의 파일로 배포되었다. 이는 MMC Interim 리눅스보다 설치가 쉽다는 장점이 있었지만 여전히 몇 가지 문제점들을 안고 있었다.

SLS 패키지를 이용하면서 SLS의 문제를 해결한 배포판이 슬랙웨어(Slackware)이다. 역으로 슬랙웨어를 통해 SLS를 짐작해 볼 수 있는데, 슬랙웨어는 그 초기 모습을 아직까지 지니고 있다.

이후 Yggdrasil이라는 (시디롬 배포를 시작한) 최초의 배포판이 나타났다. 그전까지만 해도 플로피를 이용해서 배포되던 것이 시디롬의 발달로 훌륭한 매체를 가지게 된 것인데, 이 시기가 약 1994년 정도이며 이후엔 거의 모든 배포판이 시디롬을 이용하게 되었다.

다음에 등장한 레드햇(Redhat)과 수세(Suse) 등은 좀 더 발전된 형태의 설치 및 설정 도구를 제공하였

다. 그리고 현재 X기반의 설치 및 설정 도구를 제공하는 단계까지 왔으며 앞으로 더욱 사용하기 편리한 리눅스로써 발전을 거듭해 갈 것이다.

그 외의 배포판으로 데비안(Debian) GNU/Linux(이하 데비안)가 있다. 데비안은 기업에서 개발되는 다른 배포본과 달리 전 세계 리눅스 개발자들이 만들어가는 비(非)상용 배포판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역시 1993년에 최초의 배포판 작업이 시작되었으며 오늘날의 모습을 갖추기 시작한 것은 1996년부터라고 할 수 있다. 이때가 바로 리눅스 linux-2.0.tar.gz라는 파일이 리눅스 공식 FTP사이트에 올라온 시기이며, 현재 데비안은 리눅스 커널뿐만 아니라 다른 커널(HURD)을 이용한 배포판을 계획하고 있기도 한다.

요즘은 인터넷의 발달로 인하여 인터넷을 통해서 바로 설치 가능하도록 만들어지기도 하며 DVD라는 대용량 저장매체를 이용한 배포를 하기도 한다.

2.5. 리눅스의 저작권

리눅스는 GPL(General Public License)을 채택하고 있다. GPL은 자유소프트웨어(Free Software)를 배포하고 수정하는 것과 관련하여 수많은 규정을 정의하고 있는데, 여기서 'Free'란 비용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자유(Freedom)'를 일컫고 있다. 참고로 GPL이 다루고 있는 '자유 소프트웨어'는 퍼블릭 도메인(public domain)이 아니다. 퍼블릭 도메인 소프트웨어란 아무런 저작권도 갖지 않는 소프트웨어를 말하며 글자 그대로 모든 사람에게 의해 소유된 것이다. 하지만 GPL이 말하는 소프트웨어는 저자가 그것의 소유권을 갖고 있다. 즉 표준 국제 저작권법에 의해 소프트웨어가 보호된다는 뜻이다. 소프트웨어가 자유롭게 배포된다고 아무런 저작권도 없는 퍼블릭 도메인은 아니란 사실을 혼동치 말아야 한다.

GPL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GPL 전문(<http://www.gnu.org/copyleft/gpl.html>)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본 사용안내서의 후반부에서도 GPL / LGPL에 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3. 아시아눅스(Asianux)



그림 3 아시아눅스 로고, Asia와 Linux의 합성으로 여의주를 물고 승천하는 용의 모습을 담고 있다

3.1 아시아눅스(Asianux, www.asianux.com)의 태동

아시아눅스는 아시아의 리눅스 대표 기업인 한글과컴퓨터(Haansoft Inc.)와 중국의 홍기 소프트웨어(Red Flag Software Co., Ltd.) 일본의 미라클리눅스(Miracle Linux Corporation) 그리고 베트남의 VietSoftware (VietSoftware Inc.)가 공동 개발하는 리눅스 운영체제로써, 아시아 지역의 리눅스 플랫폼 표준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아시아눅스는 시스템의 안정성, 확장성, 관리효율과 함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의 완벽한 호환성을 제공한다.

아시아눅스 인증 프로그램은 각종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제품들의 아시아눅스와 호환성과 상호운용성을 위한 것으로써 신뢰성을 기반으로 고기능 저가의 시스템 제공을 목표로 한다.

한글과컴퓨터, 홍기 소프트웨어와 미라클리눅스, 비엠프소프트웨어는 각각 한국, 중국과 일본, 베트남에 통일된 아시아눅스를 배포하고 판매한다. 각국에서 각자의 브랜드를 상용하다가 작년부터는 아시아눅스 브랜드는 물론 패키지 디자인도 통일하여 사용하고 있다.

혹자는 전세계에 약 150여 개의 리눅스 배포판이 존재한다고 한다. 이는 각 국마다 1개 이상의 리눅스 배포판이 있다는 의미이다. 이렇게 넘쳐나는 리눅스 배포판 수는 리눅스 시장의 발전 속도를 늦출 수 있는 근본 원인이 될 수 있다. 리눅스 기반 응용프로그램 개발 회사는 어떤 배포판의 스펙에 맞춰서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할지 혼란스럽기 때문이다. 또한 사용자에게도 고민을 가져다 줄 수 있다. 이미 유럽에서는 SuSE가 미주에서는 redhat이 표준으로 자리를 굳혔지만, 아시아 지역에는 여러 가지 리눅스 배포판이 난립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이것이 바로 아시아눅스 프로젝트가 태동한 이유이다.

아시아눅스의 발전

2003년 12월	아시아눅스 컨소시엄 발족(일본 미라클리눅스, 중국 홍기소프트웨어)
2004년 5월	아시아눅스 서버 1.0 발표
2004년 10월	한글과컴퓨터 아시아눅스 컨소시엄 합류
2005년 8월	한국의 NEIS(National Education Information System)에 아시아눅스 1.0 2,400개 공급
2005년 8월	아시아눅스 서버 2.0 발표
2007년 9월	베트남 비엠프소프트웨어 아시아눅스 컨소시엄 합류
2007년 9월	아시아눅스 서버 3 발표
2007년 12월	아시아눅스 조인트벤처 설립
2008년 4월	아시아눅스 모바일 미디눅스 발표

3.2 아시아눅스의 이념

아시아눅스 컨소시엄은 세가지 이념을 전제로 컨소시엄 참여사들의 협력을 위한 기본 정신이 되었다.

- Common(공통) : 아시아 환경에 최적화된 리눅스 배포판 표준을 개발하여 한국, 중국, 일본에서 수정없이 사용한다.
- Collaboration(협조) : 아시아 각국의 선두 기업이 각 기업의 개발진과 노하우를 집결시켜 Open Source 정신 아래에서 공동 개발한다.
- Contribution(공헌) : 완성된 리눅스 배포판은 아시아 환경에 적합한 기능을 갖추었으므로 Open Source 커뮤니티나 정부, 교육 단체 등에 넓게 환원한다.

아시아에는 서양과 달리 다양하고 특이한 문화가 존재한다. 그 때문에 아시아 각국의 관습이나 문화에 기인한 소프트웨어 요건이 따로 있을 수 있다. 이런 것들을 한 기업이 아시아 모든 국가에 맞게 맞추어 나간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며, 그렇다고 서양에 맞춰진 표준을 그대로 사용할 수도 없다. Asianux는 아시아 각국의 대표 기업이 협력을 통해 그 노하우를 집약하고 협조하면서 아시아 환경에 적합한 리눅스 배포판을 개발해 나간다. 개발된 성과물은 아시아 공동 재산으로, 이를 기반으로 참여 기업은 각국에서 독자적인 비즈니스를 전개할 수 있다. 그리고 Open Source 이념에 따라 개발 성과를 커뮤니티에 환원하는 것이다.

3.3 표준화와 차별화

표준의 이슈는 시장이 정한다.

시장은 리눅스에 대한 신뢰와 안정적인 기술지원을 원한다.

아시아눅스는 글로벌 솔루션 벤더들의 인증과 지원을 받고 있으며, 이는 시장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을 갖추었음을 의미한다. 또한 한국, 중국, 일본 그리고 베트남 4사 공동의 기술지원 센터와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아시아눅스가 Redhat이나 SuSE와 차별화된 3가지는 다음과 같다.

첫째로, 국산 리눅스로서 글로벌 벤더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인증을 획득한 유일한 리눅스 배포판이다.

둘째로, 온라인 기술지원을 기본으로 국내 최초 리눅스 전국 기술지원망에서부터 TSN(Technical Support Network)를 통한 파트너사 지원 및 베이징에 위치한 공동기술지원센터를 통한 안정된 지원체계를 갖추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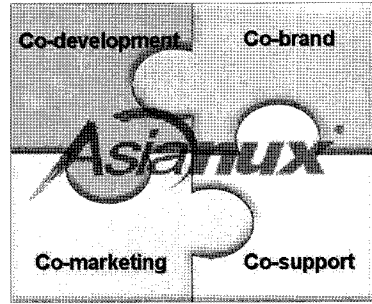


그림 4 아시아눅스 협력 모델

셋째로, 기능면에서 한국, 중국, 일본, 베트남의 컴퓨팅 환경을 가장 친밀하게 구현한 리눅스 배포판이며, CGL(Carrier Grade Linux), LSB(Linux Standard Base) 등의 스펙을 지원하며, 시스템관리자가 사용하기 쉬운 보안OS를 자체 제공한다.

아시아눅스는 레드햇 패키지를 기반으로 개발되지만 레드햇 보다 우월한 기능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위에서 언급한 CGL, LSB 스펙 지원과 기술인증을 획득한 것이며, 보안OS, 관리도구 등을 별도의 개별 상품을 OS 패키지에 기본 포함시켜 배포한다.

3.4 아시아눅스 위상

아시아눅스는 한국, 중국, 일본, 베트남 4국간 협력을 통해 IT 분야에서 실질적인 성과물을 내놓고 있는 프로젝트이다. 협력분야는 사업 기획에서부터 개발, 대외협력, 브랜드, 마케팅, 기술지원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아시아눅스에서는 이러한 협력체제를 4-Co(Co-development, Co-marketing, Co-brand, Co-support)라고 일컫는다.

한 회사의 전략 사업에 대하여 나머지 두 회사가 적극 협조하는 시스템과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 그 예로 교육정보화시스템(NEIS) 사업에 아시아눅스를 공급하기 위해 흥기의 크리스 사장과 미라클의 사토사장이 NEIS를 위해 모든 기술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서면으로 약속을 하기도 했다.

한중일 정부차원에서 운영하는 OSS(Open Source Software) 포럼은 동북아 3국의 공개소프트웨어 활성화를 위한 공동 정책을 수립하고 있고, 아시아눅스는 이에 실질적인 성과를 내놓고 있다.

그 성과로 중국 베이징 소재의 '공동 개발 센터'(Joint Development Center)에서 3국의 개발자가 모여 아시아눅스 운영체제를 개발하고 있으며, 다양한 글로벌 솔루션 벤더와의 인증작업을 거쳐 세계가 인정하는 명실상부한 리눅스 표준 운영체제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또한 리눅스 도입의 가장 큰 저해 요소로 작용하였던 안정적인 기술지원 문제는 3국의 기술지원 인력들이 모인 ‘공동 지원 센터’(Joint Support Center)를 통해 해결하고 있다.

아시아눅스 인증 정책에서 한글과컴퓨터는 국산 소프트웨어의 발전을 위해 기여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고 있다. 국산 솔루션 업체에서 개발된 국산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로서 그 성능이 입증된 솔루션들은 한글과컴퓨터와 인증작업을 수행함으로써 한중일 공동의 인증 효과를 얻게된다. 이는 곧 아시아눅스 운영체제를 기본 플랫폼으로 채택한다면 중국과 일본 시장 진출이 용이해 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홍기와 미라클리눅스는 중국과 일본의 대표 리눅스 기업이기에 때문에 국산 소프트웨어들을 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아시아눅스는 중국과 일본에 비해 침체되어 있는 리눅스 시장을 일으킬 수 있고, 국산 소프트웨어의 해외 진출을 도모할 수 있다.

3.5 아시아눅스의 성공요인과 비전

아시아눅스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프로젝트를 시작하던 초기의 목표는 각사가 가지고 있는 개발 리소스를 결집하여 공통의 제품을 개발하는 것이었다. 이후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글로벌 벤더와의 협력, 브랜드를 알리기 위한 마케팅, 기술지원에 이르기까지 리눅스 비즈니스의 전 분야에서 동일한 정책노선을 유지하고 있다. 한중일, 베트남의 국가별 시장이 갖는 성격이 상이하지만 브랜드의 글로벌화를 목표로 사업을 수행하면서 자연스럽게 통일된 사업의 시스템을 만들게 된 것이다.

한글과컴퓨터가 아시아눅스 프로젝트를 통해서 얻을 수 있었던 가장 큰 성과는 리눅스 솔루션의 공동개발은 물론 공동 마케팅으로 인한 경쟁력 강화였다. 실제로 2006년에는 교육학술정보원에서 발주한 “교무/학사 등 3개 영역 새로운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전국단위 물적 기반 구축 사업”에 2400여 개의 아시아눅스를 공급함으로써 세계적인 리눅스 도입 성공 사례를 구축할 수 있었다.

미라클리눅스와 홍기소프트웨어도 2000년에 설립되어 적자를 계속해오다가 아시아눅스 프로젝트가 시작된 후 2005년부터 흑자로 돌아섰다.

Intel, 오라클, IBM, HP 등과 같은 세계적인 회사들의 지원을 이끌어낼 수 있었던 것도 주요 성과 중의 하나이다. 아시아눅스에 대해 하드웨어플랫폼과 소프트웨어 솔루션 등에서 기술적인 호환이 되는지 인증을 해주고 지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아시아눅스

이 표준화와 보급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성과를 얻어내기까지는 수많은 노력과 계기들이 있었지만 국내 업체들과의 제휴도 아닌 국제적인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4년 이상 지속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명확한 목표의식과 일치된 의지였다.

아시아눅스는 세계 3대 리눅스 배포판으로 성장을 거듭하고 있으며, 한중일에서 시작의 성공을 시작으로 최근 조인한 베트남, 그리고 멀리 서남아시아에 이르기까지 그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타 글로벌벤더의 로열티 및 서비스 기반의 비즈니스가 아닌 공동의 목표의식 아래 공동 개발, 공동 소유, 노 로열티(No Royalty)의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은 아시아눅스를 세계적인 브랜드로 키울 수 있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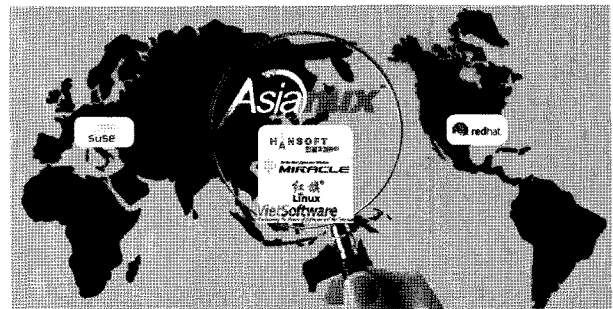


그림 5 세계적인 리눅스 배포판 브랜드로는 독일에서 시작된 수세, 미국에서 태동한 레드햇에 이어 아시아눅스가 아시아지역에서는 그 역할을 하고 있다.

3.6 아시아눅스의 사업영역

아시아눅스 프로젝트는 초기 서버용 운영체제를 목표로 시작되었으며, 한중일 3국에서 수많은 성공사례를 확보했다.

서버용 운영체제는 현재까지 3번의 메이저 업그레이드 버전을 발표하였으며 이 버전은 2년에 한 번씩 발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메이저 버전의 발표 사이에는 3번의 SP(Service Pack)을 6개월에 한 번씩 발표하며, 한 개의 메이저 버전은 7년간 유지보수 및 업데이트 서비스를 지원하게 된다.

서버 운영체제의 수익 모델은 한마디로 서비스라고 할 수 있는데 이를 위해 아시아눅스 TSN(Technical Support Network)을 구축하였으며 고객과 파트너들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아시아눅스 서버2.0의 경우 한중일 3국에 2007년 약 45,000 카피가 유상 서비스를 탑재하여 제공되었으며, 3.0의 출시와 함께 베트남 시장으로의 확산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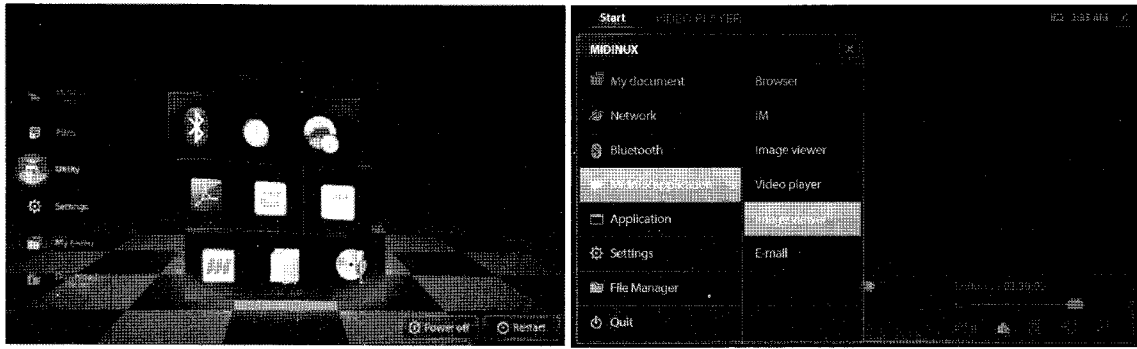


그림 6 모바일 디바이스용 운영체제인, 아시아눅스 모바일 미디눅스 (Asianux Mobile Midinux)

두 번째 아시아눅스의 아이템은 모바일이다. 지난 4월 상하이 인텔 개발자 포럼에서 아시아눅스 모바일 미디눅스(Asianux Mobile Midinux) 2.0을 발표하였다. 미디눅스는 인텔의 전략 아이템 중의 하나인 멘로(Menlow) 프로세서 기반으로 약 2년 6개월간의 개발 과정을 거쳐 2.0부터 실제 상용화를 하고 있다. 인텔 멘로 프로세서는 MID(Mobile Internet Device)라는 이름으로 이동환경에서의 인터넷 풀브라우징(Full Browsing)을 할 수 있는 디바이스로 PMP(Personal Media Player), UMPC(Ultra Mobile PC)와 Smart Phone의 시장과 차별화된 새로운 시장을 창출한다는 것이 목표이다.

미디눅스는 MID의 운영체제이며 풀브라우징, 멀티미디어, 간단한 업무 기능을 제공하는 응용프로그램을 기본 탑재하고 있다. 올해 전세계에 출시되는 MID의 대부분이 리눅스를 채택하고 있으며 그중 미디눅스가 80%를 차지한다.

차기 아이템은 저가형 데스크톱을 지원하는 운영체제이다. 인텔은 MID의 멘로 CPU가 포함되어 있는 아톰(ATOM)프로세서를 최근 발표하고 아수스 EeePC와 같은 10인치 내외의 LCD를 장착하여 작고, 500불 이하의 저렴한 PC 확산 정책을 실현하고 있다. 노트북 형태의 Netbook과 데스크톱 형태의 Nettop, 그리고 7인치 LCD를 장착하고 충격방지 케이스를 장착한 어린이용 노트북인 CMPC(Classmate PC)가 그것이다. 이들 저가형 PC는 개발도상국에는 PC의 확산에 기여하게 되고 선진국에서는 2nd PC 용도로 크게 확산될 전망이다.

아시아눅스는 이들 저가형 PC를 위한 운영체제를 올해 하반기 발표하고 리눅스 데스크톱의 확산을 본격적으로 진행할 것이다.

4. 공개소프트웨어와 아시아눅스의 미래

리눅스는 공개 소프트웨어로써 사회적 성격이 매우

강하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시아눅스가 있었기에 국가적인 대형 플랫폼 구축 사업에서도 해외로의 외화 유출을 방지할 수 있었다. 아시아눅스는 글로벌벤더의 인증, 기술지원 체계, 업데이트 정책, 제품의 장기적 로드맵 등에서 세계 1,2 위 of 리눅스 운영체제와 동등하거나 오히려 우월했기 때문이다. 아시아눅스는 국산 소프트웨어들의 해외 진출에도 기여하고 있다. 한중일, 베트남에서 100% 똑같은 플랫폼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의 솔루션 인증을 획득하고 아시아눅스를 기반으로 일본과 중국, 베트남에 쉽게 진출할 수 있는 것이다. 성공 사례로 국산 보안OS 솔루션과 오피스 프로그램이 있다.

아시아눅스는 공개 소프트웨어로써 그 사회적 기능을 다 하고 있다.

앞으로 공개소프트웨어, 리눅스는 어떻게 발전할 것인가?

인터넷 산업의 발전은 리눅스의 동반 성장을 요구한다. 리눅스의 성장과 발전 과정에서 알 수 있듯이 리눅스와 인터넷은 상생관계에 있다. 리눅스는 인터넷을 통해 확산, 발전되었고, 인터넷을 위한 엄청난 거대한 인프라와 비용이 필요했고 리눅스는 그 기능과 비용면에서 매우 효율적이기 때문이다. 인터넷을 통한 정보의 공개와 빠른 이동, 공개 소프트웨어인 리눅스의 이념적 동질성을 가지고 있다. 웹2.0의 트렌드도 공개 소프트웨어, 리눅스에 기반하고 있으며, 상호간 성장 동력으로써의 역할을 다할 것이다.

공개소프트웨어로 인하여 소프트웨어 비즈니스에 일대 혁신이 일어나고 있다. 소프트웨어 비즈니스가 서비스 모델로 정착이 되고 수익을 창출하는 구조속에서 공개소프트웨어는 당연히 그 중심을 차지하고 있다. 소프트웨어 개발 방식에 있어서도 공개 소프트웨어는 기여하는 바가 매우 크다. 공개 소프트웨어만이 할 수 있는 공개 프로젝트는 전 세계 개발자와 사용자가 참여해 글로벌 수준의 품질과 사용자 편의가

확보된 소프트웨어를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기존 벤처기업들이 소수 인력으로 안정적 사업구도를 구축할 시간확보와 품질인증에 어려움이 많았던 단점을 해소하는 것이다. 이 같은 상황 속에 세계적으로 공개 소프트웨어는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이러한 공개 소프트웨어 개발, 사업모델은 대기업에 비해 개발자는 물론 사업 영역 확보가 어려운 국내 벤처 소프트웨어 개발사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공개 소프트웨어로 원천기술의 확보는 물론 새로운 수익 창출 차원에서 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시아눅스(Asianux) 프로젝트는 5년째 진행되고 있으며 세계 3대 리눅스 배포판으로 인정받기에 충분한 기술적, 사업적 체제를 확립했다. 이들 3사는 IT 분야에서 한중일 최초의 장기적 성공사례로서 아시아눅스 프로젝트를 설명하고 있으며, 이제는 그 범위를 아시아 전역에 확산할 태세에 있다. 이미 베트남의 대표 소프트웨어 개발사가 참여하였다.

아시아눅스는 공개소프트웨어로서 갖는 사회적 역할을 다하고 있다. 또한 IT 기술이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으며, 소프트웨어 원천기술에 대한 갈증을 해소하고 있지 못하는 아시아권 국가들의 IT 산업 방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프로젝트로 거듭나고 있다.

참고: 아시아눅스 컨소시엄의 구성

· 홍기 소프트웨어 (Red Flag Software Co., Ltd. www.redflag-linux.com)

홍기 소프트웨어는 2000년 6월에 설립된 중국 최대의 리눅스 전문 회사이다.

중국의 리눅스 기술과 시장의 꾸준한 성장에 맞추어 리눅스 운영 체제와 다양한 플랫폼 적용을 위한 응용프로그램의 개발 및 공급에 중점을 두고 있다.

홍기 리눅스 솔루션은 홍기 리눅스 데스크탑, 홍기 리눅스 서버, 홍기 임베디드 리눅스, 보안 서버와 홍기 플랫폼 기반의 솔루션들을 포함하고 있다.

· 미라클 리눅스(Miracle Linux Corporation, www.miraclelinux.com)

리눅스 서버 운영체제 관련 제품과 서비스 공급자로 2000년 6월 1일 설립된 미라클 리눅스는 리눅스 운영체제의 개발은 물론, 오라클 소프트웨어 리눅스 버전 공급과 리눅스 관련 컨설팅, 교육, 유지보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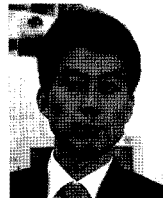
일본 레드햇에 이어 시장 점유율 2위 업체

· VietSoftware(VietSoftware Inc. www.vietsoftware.com)

VietSoftware 사는 2000년 3월, 소프트웨어 회사로 설립되었으며, 설립이래 해외 회사들을 대상으로한 아웃소싱 그리고 베트남 국내 시장을 위한 소프트웨어 개발을 해왔다. VietSoftware는 소프트웨어 개발을, VietSoftware International은 소프트웨어 아웃소싱 및 BPO를, Alliant는 software 및 IT 교육을, Viettech은 CAD/CAM/CAE 를, CyberVietnam 은 국제 비즈니스 및 전자상거래를, MobizCom 은 온라인 결제 부문을 주 사업분야로 한다.

· 한글과컴퓨터(Haansoft, Inc. www.haansoft.com, www.asianux.co.kr)

1990년에 설립된 한글과컴퓨터는 대표 소프트웨어 제품인 한/글을 포함한 한글과컴퓨터 오피스 제품으로 오피스 시장에 대안을 제시하고 있으며, 세계 3대 리눅스 배포판의 반열에 오른 '아시아눅스'를 통해 공개 소프트웨어 사업을 전면적으로 펼치고 있다. 또한, 세계 최초의 온라인 웹오피스인 '쌍크프리 오피스'로 해외 시장에서 각광받고 있으며, 차세대 인터넷 서비스 사업을 진행 중이다.



김진광

한글과컴퓨터

한컴리눅스

코어리눅스

현 한글과컴퓨터 리눅스개발실장, Asianux Corporation, Vice President and COO

E-mail : imhyo@lge.com